

보도시점 2024. 6. 26.(수) 석간 배포 2024. 6. 25.(화)

「복지위기 알림 앱」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

- 「복지위기 알림 앱」 6월 26일 전국 시행 -
- 복지위기 가구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하게 대응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(위원장 고진)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「복지위기 알림 앱」을 6월 26일(수)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.

「복지위기 알림 앱」은 경제적 어려움, 건강 문제, 고립·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(APP)으로,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‘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’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.

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,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*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연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지도상에서 거주 주소 선택

또한, 복지위기 알림 앱에서는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진 첨부 기능이 제공돼 지자체 담당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웃 위기 알림의 경우 부득이하게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한다.

<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>

❶ 위기 상황 발견 · 도움요청	❷ 접수·정보 매칭 · 지자체 배정	❸ 대상자 확인 · 상담 및 서비스 제공
▶ 본인·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 ▶ 모바일 앱·복지로 포털을 통한 도움요청	▶ 도움요청 접수 ▶ 대상자 정보* 매칭 *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해당 여부, 단전, 단수,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 이력, 수급 및 상담 이력 등 ▶ 지자체 배정	▶ 대상자 확인 * 수급·상담 이력 등 조회 ▶ 상담 및 서비스 제공 - 유선 또는 방문 상담 - 필요시 공공·민간 등 보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

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1개월간 처리 절차 등을 검증하기 위해, 서울 서대문구, 충남 아산시, 경기도 수원시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.

시범운영 기간에 약 만 천 명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설치했으며, 회원 가입자 중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각각 약 800명에 이르렀다.

한 달 동안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(89%)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 위기 의심가구*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규 가구로,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의 새로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.

*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·단수·체납정보 등 위기정보를 입수·분석하여 매 2개월 마다 약 20만 명을 발굴대상자로 통보(연 6회)

한편,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앱스토어,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, 간편한 회원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. 또한 대국민 복지정보 제공 포털인 복지로*에서도 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*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 메인화면 “자주 찾는 서비스” - “복지위기알림”

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“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” 라면서, “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말고,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더불어,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“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전 국민이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, 민·관의 흠어져 있는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매칭·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” 라면서, “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 라고 하였다.

- <붙임> 1. 복지위기 알림 앱 개요
2. 복지위기 알림 앱 안내 포스터
3.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위기 알림 절차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	책임자	과 장	노정훈 (044-202-3120)
		담당자	사무관	한두희 (044-202-3123)
	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전략과	책임자	과 장	김도엽 (02-750-4791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현 (02-750-4792)
	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	책임자	본부장	박미야 (02-6360-6460)
		담당자	대 리	박상영 (02-6360-6485)



□ 추진 배경

-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즉시, 언제, 어디서나 쉽게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앱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강화

□ 주요 내용

- (이용자) 일반국민, 업무유관자(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신고의무자*)

* (사회보장급여법 13조) 공무원, 복지·의료·교육기관 종사자, 이통장, 검침원 등

- (위기 알림 대상) 복지 위기 상황*에 처한 본인, 이웃

* 생계지원, 돌봄·보호, 건강·의료, 일상생활, 주거지원, 일자리, 채무·법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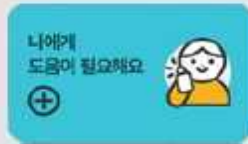
- (알림 정보) 위기상황, 가구유형* 및 정보(성별, 주소, 알림내용 등)

* 독거 가구, 조손 가구, 한부모 가구, 장애인 가구, 북한이탈주민 가구 등

- (처리절차) ① 본인·이웃위기 상황 발견·복지 위기상황 알림*(앱·포털)
⇒ ②시스템 접수·지자체 담당자 배정 ⇒ ③음면통 대상자 확인, 상담 및 상담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건·복지 서비스 안내·제공 또는 연계

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“복지위기 알림 앱”

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쉽고 빠르게!



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설치하세요
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‘복지위기알림’을
검색하여 다운로드



도움요청 누가 할 수 있나요?

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명예사회복지공무원
- 공무원, 이·통장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



요청 방법은?

- 앱 설치 후 도움 필요 대상, 위기상황 선택 및 도움요청 내용 입력 (비회원, 익명 도움요청 가능)



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?

- 나와 이웃이 생계곤란, 신체·정신건강, 고립 및 고독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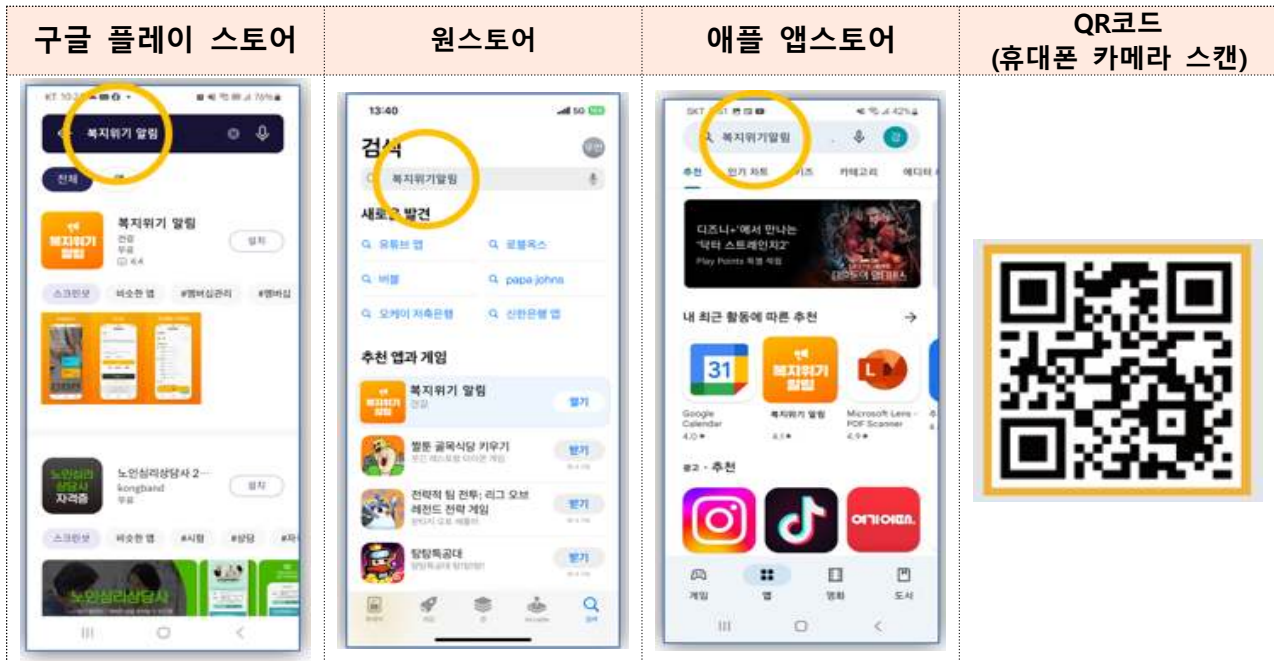
무엇을 도와주나요?

-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 제공 (생계비, 의료비, 주거지원 등)
- 건강관리서비스, 돌봄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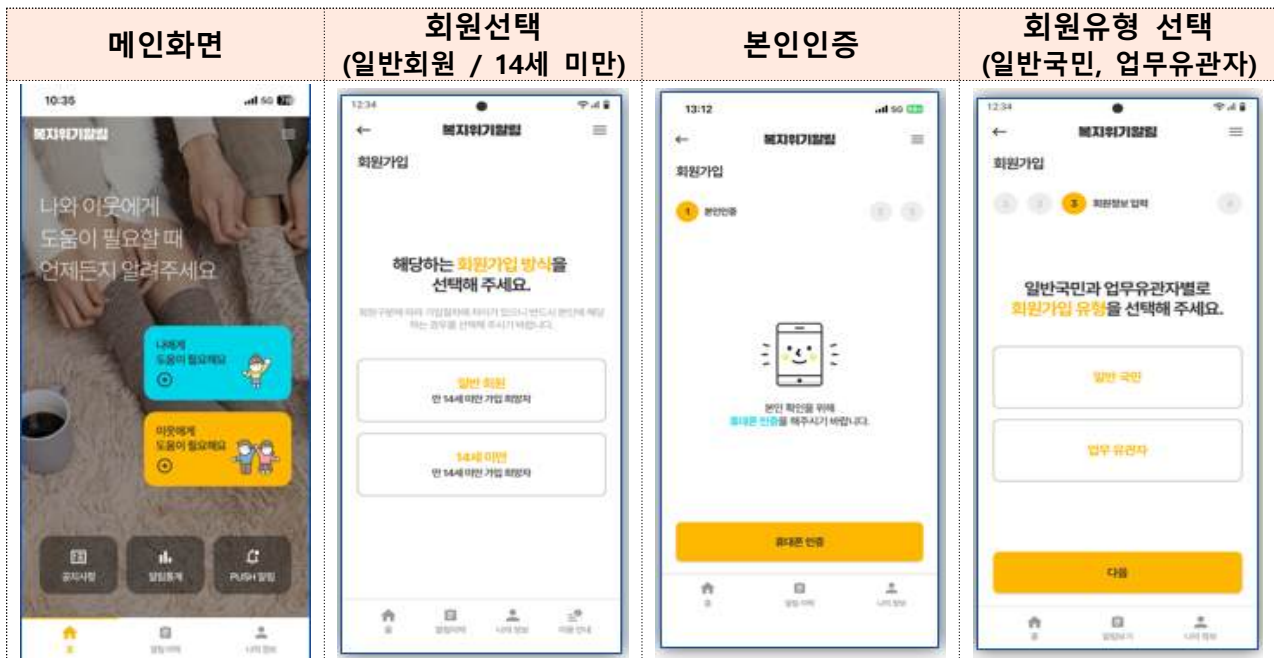
붙임 3

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위기 알림 절차

1. 앱 내려받기 (어플 스토어에서 “복지위기알림”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)



2. 회원가입



* 업무유관자: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신고의무자

※ 비회원도 본인 인증을 거쳐 위기 알림 가능

3. 알림 하기 (1)

위기상황 선택	가구유형 선택	대상자 정보 입력	주소 입력 (위치 선택 가능)

4. 알림 하기 (2)

사진 등록 및 알림내용 입력	내정보 입력 (익명알림 가능)	알림 하기 완료